

# 前漢 後期에 있어서 재이해석과 讖緯

鄭日童\*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災異의 해석과 정치적 예언
3. 占候의 다양화와 讖書의 출현
4. 나오는 글

##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前漢 말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讖緯說의 성립 과정을 정리할 목적으로 시도된 것 중 일부이다. 참위는 數術占卜, 神仙方技, 原始宗教, 儒家經說 및 古代自然科學 등이 포함되었다고 요약한 바<sup>1)</sup>와 같이 그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 핵심은 천인합일론을 주체로 하고 음양오행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포복을 활용한 정치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참위를 말할 때 數術占卜은 그 비중이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다. 《漢書》 <藝文志>의 數術略에 의하면 수술은 天文, 曆譜, 五行, 蓍龜, 雜占 및 形法 등 여섯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감안해 본다면 참위는 천문, 역산, 그리고 음양오행론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그리하여 참위는 재이론자나 수술가 또는 방사들이 자연현상의 징조에 의지하는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鐘肇鵬, 《讖緯論略》, 遼寧教育出版社, 1991, p.74, 顧詒剛, 《秦漢的方士與儒生》, 上海古籍出版社, 2005, pp. 94-99에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2) 徐興無, 《讖緯文獻與漢代文化構建》, 北京, 中華書局, 2003, pp.2-3.

천인감응론을 주제로 하고 天文律歷의 계산과 음양오행론 등 여러 가지 占斷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예언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참위설의 성립과정을 정리해 보려는 의도로 先秦시기부터 漢初까지의 천인상관론과 음양오행론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sup>3)</sup> 이번에는 주로 漢武帝 이후부터 哀帝 및 平帝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이현상을 여러 經書 및 수술점복에 의지하여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예언을 제시했던 인물들과 그 방법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수술점복의 발달과 함께 占斷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讖書가 출현되는 과정에 대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훌륭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 있다.<sup>4)</sup> 근래 우리 학계의 중국 고대사상사 분야에서도 참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수술점복이나 재이론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어<sup>5)</sup>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 2. 災異의 해석과 정치적 예언

인사와 자연적 재이와의 유관성을 강조하는 天人合一論은 유학자 董仲舒에 의하여 정리된 후 漢왕조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董仲舒는 《春秋》의 意義를 강조하며 天이 인사에 응하여 재이를 내리서 讖告를 보인다고 강조함으로써 漢代 유학이 종교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고, 통치계급으로 하여금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던 것이다.<sup>6)</sup> 그

3) 鄭日童, <《春秋繁露》에서의 天人相關論>, 《中國史研究》 第48輯, 2008, pp.1-29.

4) 陳麗柱, 《兩漢諸子研究論著目錄》(漢學研究中心 編印, 中華民國 九十二年 九月)의 1997-2001 및 같은 책 1912-1996에 讖緯 관련 연구 성과가 다수 소개되어 있음.

5) 뒤의 참고문헌 참조.

리하여 前漢 후반기가 되면서 조야에서는 董仲舒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삼아 재이를 해석하고 정치적 예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董仲舒의 경우 재이를 上天의 讖告 수준으로 해석하는 정도였지 예언적 요소가 뚜렷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그런데 前漢 후반기가 전개되면서 천문학과 음양오행설이 발달하고 易學의 卦氣說<sup>8)</sup>과 같은 점후 방법이 실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재이는 天이 군주에게 건고하는 것으로 봄은 물론 예언으로까지 해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前漢 후반기에는 천변재이를 천의 건고 수준으로 보려고 했던 劉向 계통의 경향과 함께 재이를 천의 건고는 물론 예언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昭帝 때의 眭弘, 元帝 때의 京房, 成帝 때의 谷永, 翼奉, 甘忠可, 成帝 말기 및 哀·平帝 때의 李尋, 夏賀良 그리고 田終術 등의 정치적 예언이 계속 제기되었다.<sup>9)</sup>

班固는 《漢書》 권75, <眭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의 贊에서 그들의 언설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들의 언설은 경서를 빌려 도리를 만들고 象類에 의탁하기도 하는데, 도리의 일단을 방불케 하는 점이 있고, 자주 적중하는 것도 있음을 외면할 수는 없다.”<sup>10)</sup>고 하였다. 그와 같은 평가는 前漢 후반기가 전개되면서 재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春秋》의 意義나 음양론뿐만 아니고 《齊詩》, 《尚書》, 《易》과 같은 經書 그리고 천문 역법 등 다른 여러 가지 점후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재이 해석이 다양해지고, 예점화의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劉澤華 主編, 《中國古代政治思想史》,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310-311. 趙吉惠 等編, 《中國儒學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pp.262-265.

7) 板野長八, <圖讖と儒教の成立1>, 《史學雜誌》 84-2에서는 董仲舒는 《春秋》에서 점단과 예언을 동시에 구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하였음.

8) 《周易》의 근본을 氣에 두면서 그 卦象을 일년 절기의 변화로 해석하였는데, 64卦를 4계절, 12월, 24절기, 72候에 배치하였음.

9) 《漢書》, 권75, <眭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에 의하면 전한 후기에 술수에 정통하여 재이를 언급한 저명한 학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음. “漢興, 推陰陽言災異者, 孝武時有董仲舒, 夏侯始昌, 昭, 宣則眭孟, 夏侯勝, 元, 成則京房, 翼奉, 劉向, 谷永, 哀, 平則李尋, 田終術. 此其納說君時著明者也. 察其所言, 仿佛一端. 假經設誼, 依托象類, 或不免乎, 億則屢中.”

10) 위의 사료 참조.

董仲舒 이후 재이를 上天이 인간사회에 경고하는 것으로 보았던 인물로서는 武帝 후기와 昭帝 때 활동했던 夏侯始昌을 들 수 있다. 《漢書》 列傳에 의하면 그는 五經에 통하고 《齊詩》와 《尚書》를 가지고 교수했으며 董仲舒 및 韓嬰의 사후 武帝의 신임을 얻고 존중되었다고 한다.<sup>11)</sup> 특히 夏侯始昌은 음양술에 밝아 柏梁臺<sup>12)</sup>에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날에 이르러 예언대로 적중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는 경학에도 밝았고 음양론에 능통하였으며, 술수를 활용하여 자연의 현상과 인사의 길흉을 연관시켜 예측하는 일에 능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漢書》 <昭帝本紀>, 列傳 및 五行傳 등에 의하면 昭帝 때의 畦弘도 天變地異를 정치적 예언으로 보려고 했던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元鳳 3년(B.C. 78)에 泰山縣에서 큰 돌이 自立하고 그 주변에 백조 수천 마리가 내려앉았던 일, 昌邑에서 마른 社木이 다시 살아났던 일 그리고 上林園에서는 넘어진 大柳가 다시 일어났는데 벌레가 잎을 갉아 '公孫病已立'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던 이변 등을 《春秋》와 음양론에 기초하여 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였다. 즉 石이나 柳는 陰의 종류로 하층 인민의 상징이고 泰山은 신성한 산 중 최고의 산으로서 군주의 교체를 天에 고하는 곳이라고 전제하고, 땅에 누웠던 大柳가 다시 일어난 것은 하층 민간에서 天子가 나오는 것에 해당되고, 고목이 재생한 것은 폐가가 되었던 公孫氏가 다시 흥성해질 조짐이라고 하면서 군주의 교체를 예언하였다.<sup>13)</sup>

이어서 畦弘은 董仲舒의 발언을 인용하여 昭帝의 퇴위를 언급하였다. 그는 천자라고 하더라도 聖人이 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니 漢室의 황제도 堯가 선양한 것처럼 현인을 찾아 제위를 물리고 제후가 됨으로써 천명에 따라야 한다<sup>14)</sup>는 요지의 글을 써 조정에 올렸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畦弘은

11) 《漢書》, 권75, <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自董仲舒韓嬰死後, 武帝得始昌, 甚重之. 始昌明於陰陽, 先言柏梁臺災日, 至其日果災.”

12) 未央宮에 있었던 건물로, 太初元年(B.C. 104) 11월에 화재가 있었음.

13) 《漢書》, 권75, <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有大石自立, -(중략)-, 禪以帝位, 而退自封百里, 如殷周二王後, 以承順天命.”

14) 위의 책, “漢帝宜誰差天下, 求索賢人禪以帝位.”

요사스런 말로 인민을 현혹하고 大逆無道の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살되었으나, 3년 후 宣帝가 민간에서 영입되어 제위에 올랐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夏侯勝은 昭帝-宣帝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夏侯昌으로부터 《尚書》와 <洪範五行傳>을 전수받았고 천변지이에 대하여도 자주 언급하였다. 夏侯勝은 昌邑王이 昭帝의 뒤를 이은 후 자주 외출하며 정사를 소홀히 하자 당시의 가뭄 현상은 신하들 중 음모를 꾀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황제를 제지하다가 하옥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시 霍光과 張安世가 昌邑王을 폐출하려고 모의하던 중이어서 그들이 夏侯勝을 불러 자세한 것을 묻자 <洪範傳> 내용<sup>15)</sup>을 예언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당시 조정에서는 각종 재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이용하여 미래를 점단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宣帝 때 각종 재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이용하여 미래를 점단하는 예는 즉위 4년 여름에 關東 49개 군에서 발생한 지진 때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황제는 소복을 하고 正殿을 피하면서 인민을 구휼하였고, 여러 列侯·中二千石 등은 널리 術士들에게 물어 재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하라는 조칙을 내렸다.<sup>16)</sup> 그 같은 조칙 내용은 당시 조정 또는 재야에는 천변재이를 이용하여 예언을 말하는 術士 또는 方士들이 널리 존재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宣帝 때의 다른 예로서 御史大夫 蕭望之 관련 사료를 들 수 있다. 그는 《齊詩》를 익혔고, 夏侯勝으로부터 《論語》와 禮服에 대하여 지도를 받았으며, 말년에는 太子太傅가 되어 태자에게 《論語》와 禮를 교수했던 유학 관료였다. 蕭望之가 大行的 治禮丞으로 재직 중이던 地節 3년(B.C. 67) 여름에 우박이 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그는 황제에게 《春秋》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신이 정치를 독단하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진언하면서 미래를 예언하였다.<sup>17)</sup> 이렇게 유학 관료 출신 蕭望之가 조정에서 공공연히 재이의 발생을 霍

15) 위의 책, “在洪範傳曰皇之不極，厥罰常陰，時則下人有伐上者，惡察察言，故云臣下有謀。”

16) 위의 책, “朕甚懼焉。其與列侯中二千石博問術士，有以應變，補朕之闕，毋有所諱。”

17) 《漢書》，권 78, <蕭望之傳第四十八>을 보면 《春秋》 昭公 3년에 큰 우박이 내렸는데, 이는 당시 季氏가 정치를 좌우하다가 마침내 昭公을 몰아냈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음.

氏 일파의 정치 독단과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연관시켜 논한 것은 당시 조정 관료들이 재이를 정치적 예언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宣帝 때 조정 내외의 여러 관직을 거치고 御使大夫와 前將軍, 光祿勳을 지낸 魏相 관련 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列傳에 의하면 그도 젊어서 《易》을 익혀 역술에 밝았던 유가 관료였으며, 자주 《易》의 음양론과 《禮記》의 <明堂>篇·<月令>篇을 인용하여 상주하였다고 한다. 列傳에 소개된 상주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魏相은 천지의 변화를 음양론을 이용하여 논하였고, 경서에 밝고 음양에 능숙한 4명을 선발하여 각기 하나의 계절을 담당하여 직책을 수행하게 하면 음양이 조화되어 천하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등 자주 나라의 이익을 말하여 宣帝가 용납하였다고 한다.<sup>18)</sup>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蕭望之 관련 앞의 인용문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 조정 또는 그 주변에 재이 해석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數術家 또는 方士들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sup>19)</sup>

元帝 때에는 황제는 물론 관료 등 지배집단 안에서 재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다. 元帝는 태자 시절부터 유학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민적·도덕적 통치 자세를 표현하려는 의욕이 있었고, 조정 관료들은 환관이나 외척의 정치 간섭을 비판하는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재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당시 고급 관료들의 상주문에서는 재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成帝 이후부터는 외척·총신들의 정치 농간에 대한 비판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는데, 당시 활동한

蕭望之는 만약 당시에 昭公이 천변을 살폈더라면 季氏에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霍氏의 정치 농간과 앞으로 닥칠 결과를 예견하였음.

18) 《漢書》, 권74, <魏相丙吉傳第四十四>, “相明易經, 有師法, 好觀漢古事及便宜章奏, 以爲古今異制.”

19) 《後漢書》, <百官志>를 보면 조정에 太史令이 설치되어 天時와 星曆 및 擇日과 時節禁忌, 瑞應과 災異의 기록, 日月星氣의 관측 등을 담당한다고 했음. 그리고 太史丞, 靈臺丞 및 博士 등 전문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보조인원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대표적인 인물로는 劉向을 들 수 있다.

劉向은 昭帝 元鳳 4년(B.C. 77)에 楚元王의 4세손으로 태어나 宣帝의 명에 따라 《穀梁春秋》를 학습하였다. 元帝 때에는 散騎宗正給事中이 되어 蕭望之와 함께 정치를 보필하였는데, 음양재이론으로 정치를 논하며 환관과 외척의 정치 농단을 탄핵하다가 두 차례나 하옥되기도 하였다. 元帝 때인 永光 元年(B.C. 43)에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주목하고 군주의 지위가 신하에게 위협 받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황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劉向은 당시의 재이의 원인은 신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첨하는 신하, 즉 石顯과 그를 추종하는 牢梁, 陳順, 五鹿充宗 등을 멀리하고 충신을 등용하여 치세를 이룰 것을 권고하였다.<sup>20)</sup>

劉向은 그 자신이 황족이었으므로 漢왕조의 흥성과 황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였겠지만 33년 후인 成帝 元延 3년(B.C. 10)에 劉向은 70세의 노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C. 12년의 日蝕, 無雲有雷, 彗星 출현 그리고 B.C. 10년의 岷山 붕괴 등 연이은 재이 출현을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연관시키면서 정치적 개선을 통하여 황제권을 확보하고 漢왕조를 중흥시켜야 한다<sup>21)</sup>고 역설하였다. 그와 같이 재이 해석을 통하여 황권 강화, 군주의 도덕적인 자세 등을 강조하는 점에서 볼 때 劉向의 재이에 대한 인식은 董仲舒와 유사한 점이 있다.

劉向의 재이해석 방법을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는 中壘校尉를 끝으로 관직을 마칠 때까지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洪範五行傳><sup>22)</sup>을 근간으로 하면서 당시까지 기록상으로 전해오고 있던 여러 가지 재해를 해석하여 집약한 《洪範五行傳論》 十二卷은 재이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漢書》의 列傳 및 五行志 등의 내용

20) 《漢書》, 권36, <楚元王傳第六>, “臣前幸得以骨肉備九卿, -(중략)-, 竊推春秋災異, 以救今事一二, 條其所以, 不宜宣泄.”

21) 위의 책, “是時帝元舅陽平侯王鳳爲大將軍秉權, ”, “元延中, 星孛東井, 蜀郡岷山崩雍江. 向惡此異, 語在五行志. 懷不能已, 復上奏, 其辭曰, (이하 생략).”

22) 《尚書大傳》 중의 일부로 伏生이 저술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선진 이래 진한에 이르기까지의 符瑞, 災異를 기록해 놓았음.

을 종합해 보면 劉向과 관련된 재이 기사들이 많아 거기에서 그의 재이 해석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다.

《漢書》五行志에 소개된 劉向 관련 재이 기사는 일반적으로 그가 저술한 《洪範五行傳論》으로부터 발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재이해석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재이는 人事를 그 원인으로 한다는 <洪範五行傳>의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거기에 더하여 易學, 陰陽論, 天論 등의 방법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洪範五行傳>의 형식에 따라 재이와 인사를 연결시킨 후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를 天으로 보았고, 군주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재이를 설명하였다. 劉向이 <洪範五行傳> 계통의 학설을 기본으로 하였던 것은 그 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夏侯始昌, 夏侯勝, 그리고 歐陽生 등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3)</sup>

劉向의 재이 해석에서는 易學도 어느 정도 활용되었다. 漢代 후반의 역학은 여러 학파가 있으나 劉向이 영향 받은 것은 그 보다 약간 선배가 되는 孟喜로부터 시작하여 그와 활동시기가 비슷한 京房으로 이어졌던 계통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劉向은 校書로 재직할 때 京房의 역학을 다른 학파의 것과 비교하여 그 다른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한 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京房의 학설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劉向이 취했던 재이해석 방법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그는 재이 해석방법에 있어서 <洪範五行傳>이나 常數易, 陰陽論 그리고 天論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일정한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董仲舒의 학설을 일부 답습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이해석의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劉向의 재이해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역학을 많이 연구했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재이현상을 예언으로까지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는 재이를 인사의 결과로 보는 <洪範五行傳>에서 말하는

23) 田中麻紗巳, 《集刊東洋學》 24(1970), <劉向の災異說について>, p.31.

因果의 공식적인 기술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재이를 天의 讖告, 즉 장래 발생될 상황의 전조 정도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점은 劉向이 재이를 해석할 때 常數易을 이용한 경우가 적었다<sup>24)</sup>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는 董仲舒가 재이를 해석할 때 《春秋》를 기초로 하고 음양론을 이용하면서 天의 讖告 수준으로 보았던 것과 비슷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前漢 후반기에 활동했던 여러 유가 관료들의 재이해석의 방법 중에서 翼奉의 경우에서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蕭望之, 匡衡과 함께 《齊詩》를 수학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律曆·陰陽의 점을 좋아했다고 한다. 元帝 즉위 후 諸儒의 추천으로 少府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상소를 올려 황제의 존경을 받기도 하였다. 翼奉이 율력과 음양을 이용한 점술에 능통했다는 것은 宣帝의 外族인 平昌侯 王臨이 조칙을 받아내어 翼奉으로부터 그 술수를 전수받으려고 노력했었다는 점에서도 증명이 된다.

翼奉의 점단 방법은 初元 2년(B.C. 47) 平昌侯가 조칙을 빌어 그의 점술 방법을 전수받으려 했을 때 올린 상주문<sup>25)</sup>에서 잘 알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翼奉은 《齊詩》의 내용<sup>26)</sup>과 陰陽五行論, 12律, 方角 및 紀時曆法 등을 이용하는 점후를 통하여 군신 간의 관계나 장차 전개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후 元帝가 “방문자가 善日邪時에 오는 것과 邪日善時에 오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라고 물었을 때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답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翼奉의 점단 방법은 《漢書》列傳에서도 더 찾아볼 수 있다. 같은 初元 2년(B.C. 47)에 關東에 흉수가 발생하여 11개 군에 기근이 있었고 역병이 심하자 元帝는 여러 가지 구휼책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 해에도 2월과 7월에 隴西 등에 지진이 계속되었고, 齊에서는 ‘人相食’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

24) 田中麻紗巳, 앞의 논문에 의하면 《漢書》, 五行志에 유향의 설로 언급된 120조의 기사 중 《易》을 활용한 것은 5조에 불과함.

25)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臣聞之于師, 治道要務, 在知下之邪正. - (중략). 詩曰‘吉日庚午’ - (중략). 風以大陰下抵建前, 是人主左右邪臣之氣也. 平昌侯比三來見臣, 皆以正辰加邪時. 辰爲客, 時爲主人. 以律知人情, 王者之秘道也, 愚臣誠不敢以語邪人.”

26) <小雅>, 吉日的 詩 “吉日庚午”부분.

자 元帝는 자신의 부덕으로 재이가 발생했음을 천명하고 빈민을 구휼하고 천하에 특사령과 함께 直言極諫之士의 천거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당시 翼奉도 대책을 올려 연이어 발생하는 재이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는 우선 인간의 氣가 천지를 감동시키고, 天의 변화가 星氣와 일식으로 보이며 地의 변화는 기이한 물체나 지진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齊詩》, 陰陽五行論, 12律, 象數易 그리고 紀時曆法 등을 이용하는 점후를 제시한 후 인재 등용 등 정치 개혁을 건의하였다. 翼奉의 대책을 보면 그 해는 太陰이 甲戌을 잡고 黃鐘律은 庚寅에 처음 일을 시작하며, 曆은 甲午日에 봄에 따르니 律은 參陽을 얻고 性は 인의에 적중하며 情은 公正貞廉을 얻으니 백 년 만에 좋은 해라고 점단하였다.<sup>27)</sup>

위 대책 내용에서는 翼奉이 점험을 도출할 때 활용했던 방법들 중에 易術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해는 11월 庚寅부터 甲庚의 일에 이를 때 律은 ‘參陽을 얻는 백 년 만에 좋은 해이므로 정치 개혁에 좋은 기회라고 보았던 근거는 역술을 활용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參陽’이라 함은 甲과 庚은 모두 易卦 兌의 세 개가 陽爻로 좋다는 의미이고, 甲은 동방에 배당되어 仁이고, 庚은 서방에 배당되어 義이며, 戌은 公正이고, 寅·午는 廉貞이므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것이다.<sup>28)</sup>

《易傳》의 내용을 인용한 예는 황제로부터 “방문자가 善日邪時에 오는 것과 邪日善時에 오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답하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방문자와 주인 및 그 날의 日辰과 時運을 음양론과 천문역법에 따라 조합하면 여러 가지 점단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易傳》 <繫辭上>의 “顯諸仁，臧諸用”을 인용하여 人情을 알아보는 방법은 현명한 군주 한사람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7) 《漢書》, 권75, <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今年太陰建於甲戌, 律以庚寅初用事, 曆以甲午從春, 曆中甲庚, 律得參陽, 性中仁義, 情得公正貞廉, 百年之精歲也.”

28) 위의 책, 본문 중 孟康 및 張晏 주석을 참조하였음.

### 3. 占候의 다양화와 讖書의 출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前漢 후반기가 전개되면서 재이 해석을 통한 점단 방법이 점차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董仲舒가 활동하던 때까지만 해도 《春秋》를 기초적 도구로 삼고 음양론을 빌어 재이를 해석하였으나 아직 예언적 요소는 뚜렷하지 못했고 견고 수준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兩夏侯, 哇弘, 蕭望之, 魏相, 劉向 그리고 翼奉 등의 경우에서 보면 《春秋》 이외에도 《尙書》, 《齊詩》 등 경서의 의의를 기본으로 하고 陰陽五行論, 易卦 그리고 紀時曆法 등을 이용한 재이 해석을 통하여 정치적 예언을 제시하였다.

先秦시기에도 예언을 말하는 점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史記》 <天官書>에 의하면 “尹臯, 唐昧, 甘公, 그리고 石申 등이 군주나 재상들의 요구에 따라 占驗을 제공했다”<sup>29)</sup>는 기사와 함께 漢初까지의 다양한 천문 점험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漢書》 <藝文志>에도 《史記》에 제시된 인물들 외에 춘추시대에는 魯의 梓慎, 鄭의 裨竈, 晉의 卜偃, 宋의 子韋, 전국시대에는 楚의 甘公, 魏의 石申夫 그리고 漢시대에는 唐都和 같은 數術家들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한편 《漢書》 <藝文志> 數術 영역에는 109家에 2,939권의 점험을 위한 서책이 있다<sup>30)</sup>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前漢 말기에 劉歆이 분류할 당시에 예언을 말하는 수술 영역은 天文을 비롯하여 曆譜, 五行, 蓍龜, 雜占 그리고 形法 등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인간이 인식 가능한 각 방면이 거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술의 핵심 내용은 왕조의 운명 추단을 비롯한 인간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29) 《史記》, 卷27, <天官書>, “而臯唐甘石因時務論其書傳, 故其占驗凌雜米鹽.”

30) 《漢書》, 卷10, <藝文志>에 소개된 수술가는 天文 21家, 445卷, 曆譜 18家 606卷, 五行 31家, 652卷, 蓍龜 15家, 401卷, 雜占 18家, 313卷, 形法 6家, 522卷으로 합계 109家, 2,939卷임.

서,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다가 올 길흉을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 기능이다. 길흉 판단은 천체의 운행·기상의 변화 등 자연 현상이 주된 대상이고, 占卜의 주요 수단으로는 천체 관측 그리고 陰陽五行, 易卦, 干支 등 추상적 부호 체계의 조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前漢 후기의 역사가 전개 되면서 수술가 또는 방사들의 길흉 판단은 점험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점단에 의하여 미래의 길흉을 추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이 해석을 통한 길흉 판단의 방법은 元帝 재위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시기로 볼 수 있다. 元帝 이전까지는 董仲舒와 같이 《春秋》의 의의를 기본으로 하고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한 재이 해석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魏相, 劉向 및 翼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이 해석에 있어 春秋學의 재이설, <洪範五行傳> 그리고 《詩》의 의의만으로는 부족했던 점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京房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정한 공식, 즉 常數易을 활용하여 재이를 인간사회와 연관시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京房은 梁의 焦延壽로부터 《易傳》을 전수받았고, 元帝 初元 4年(B.C. 45)에 孝廉으로 郎이 되었다. 그는 永光(B.C. 43~39)·建昭(B.C. 38~34) 연간에 西羌이 반기를 들었을 때 日蝕이 발생하였고, 또 태양이 광채가 없었으며, 어두운 안개로 맑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변이 있을 것을 예언하여 가까이는 수개월, 멀리는 일 년 이내에 적중하였으므로 황제도 감복하였을 정도로 점험이 좋았다고 한다.

京房의 재이에 대한 견해는 다른 재이론자들과 다른 것이 없다. 그는 元帝가 재이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물었을 때 군주의 정치 결과에 따라 祥瑞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식과 같은 현상은 上天이 인군에게 경계를 보이는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찬탈하려는 신하의 싹이 자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군주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덕행을 행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는 군주의 잘못된 정치행위에 대하여 天은 자연계에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며 경계를 보내는 것이고, 군주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天人相關論과 동일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京氏易傳》에서의 災異說은 董仲舒의 주장과 같이 氣를 매개로 하고 있고, 천인감응을 기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 특히 황제의 氣는 극히 작더라도 상천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주의 무한하고 거대한 가운데에 있는 氣 마저도 변화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재이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재이를 취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京房의 재이설은 우주자연의 모든 현상의 변화, 즉 風·雨·寒·溫·晴·暘 모두를 재이, 또는 최소한 재이의 경고로 보았다. 그리하여 재이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단순하게 政事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불행까지도 천인감응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황제만이 천인감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京房의 재이 해석에는 주로 易卦가 이용되었다. 경방에게 《易傳》을 전수해준 焦延壽가 “나의 법도로서 망신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京房일 것이다”<sup>31)</sup>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는 《易傳》의 연구에 매진하여 재이 해석에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등 역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漢書》 열전에 의하면 京房의 학설은 焦延壽의 학설을 이어받아 災變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그것은 《易傳》의 64괘를 일 년 각각의 날(一日)에 배분하여 사건의 길흉을 점쳤으며, 風雨, 寒溫을 가지고 시절의 기후로 하는 데 여러 占驗이 가능한 것이었다.

《漢書》 列傳에는 京房의 역술을 이용한 재이 해석 방법을 알 수 있는 예가 몇 군데 소개되어 있다. 먼저 그가 魏郡太守로 좌천될 때 元帝에게 올린 상주문<sup>32)</sup>을 보면 ‘少陰倍力’, ‘乘消息’, ‘乘卦’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少陰倍力’에서 少陰은 《易傳》의 12消息卦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雜卦로서 신하를 의미하

31)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32)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建昭二年二月朔拜, 上封事曰”辛酉已來, 夢氣衰去, 太陽精明, 臣獨欣然, 以爲陛下有所定也. 然少陰倍力而乘消息. -(중략)-. 乃辛巳, 蒙氣復乘卦, 太陽侵色, 此上大夫覆陽而上意疑也.”

로 少陰倍力을 신하들이 결합한 것으로 풀이하였다.<sup>33)</sup> 乘消息은 12消息卦의 息卦인 泰·大壯·夬·乾·姤·遯 중 2월에 배당되는 大壯卦에 올랐다는 것이며, 乘卦는 2월 18일에 배당되는 捰卦에 희미한 기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上大夫覆陽而上意疑’와 같이 신하들에 의하여 황제의 뜻이 침해받는 일이 나타났다는 점함을 도출해 냈던 것이다.

京房이 魏郡太守로 부임하던 도중에 올린 세 번째의 상주문<sup>34)</sup>에서도 첫 번째 상주문과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京房은 앞에서와 같이 역괘를 이용하여 이변을 해석하였다. 즉 25일에 蒙氣<sup>35)</sup>가 사라졌다가 다음 26일에 다시 일어난 것을 ‘少陰并力而乘消息’이라 하여 신하를 의미하는 少陰·雜卦의 활동을 太陽·消息의 괘가 이기지 못하여 태양이 침색되고 일월이 서로 압박하는 이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少陰·雜卦·邪陰은 환관 石顯 일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消息·太陽은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京房이 魏郡太守로 좌천되는 조칙을 받고 출발 직전에 올린 두 번째 상주문<sup>36)</sup>에서도 역시 易術을 이용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建昭元年(B.C. 38) 6월 중의 이변을 가지고 京房 자신이 변을 당할 것으로 예견하고 ‘遯卦不效’라 했던 것을 한 번 더 언급한 상주문 내용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遯卦는 12消息卦 중 6월에 해당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道人이 떠나면 날씨가 추우며 물이 솟아오르는 이변이 발생한다”는 점후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7월에 물이 솟아오르는 일이 있었다. 제자 姚

33) 12消息卦 중 泰·大壯·夬·乾·姤·遯으로 구성된 息卦를 太陽이라 하고, 否·觀·剝·坤·復·臨으로 구성된 消卦는 太陰이라 하며 천자를 의미하고, 그 외의 다른 괘는 少陽 또는 少陰으로 신하를 의미함.

34)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房至陝, 復上封事曰乃丙戌小雨, 丁亥蒙氣去, 然少陰並力而乘消息, 戊子益甚, 到五十分, -(중략)-, 太陽侵色益甚, 唯陛下毋難還臣而易逆天意, 邪說雖安於人, 天氣必變, 故人可欺, 天不可欺也, 願陛下察焉.”

35) 蒙은 64괘 중 하나로 小童·愚昧의 상으로 희미하여 밝지 못한 모습임.

36)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房意愈恐, 去至新豐, 因郵上封事曰‘臣前以六月申言遁卦不效, 法曰道人始去, 寒, 湧水爲災.’至其七月, 湧水出. -(중략)-. 惟陛下毋使臣塞湧水之異, 當正先之死, 爲姚平所笑.”

평은 道士라 함은 京房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 위험하니 石顯에 대한 비판을 멈추도록 충고하였으나 京房은 스스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제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요지의 상주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상주문은 경방 자신이 魏郡太守로 부임한 직후에 참변을 당하게 될 것을 역괘로 풀이하여 미리 예견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京房이 활용했던 易術은 그 자신이 독창적으로 완성한 것은 아니다. 《易》은 전국시대에 이미 그 계통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易傳》이 출현하였는데, 漢왕조 건국 초기에는 그 전체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은 <象>上·下, <象>上·下, <文言>, <繫辭>上·下, <說卦>, <序卦>, <雜卦> 등 7종 10편으로서 모두 《周易》의 해석과 筮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象>上·下, <象>上·下는 卦爻辭의 의미와 그 길흉 辭句의 해석이고, <文言>은 卦爻辭를 설명한 기록이며, <繫辭>上·下는 《周易》에 대한 통론과 원리, 筮法의 대의에 대한 설명이다. <說卦>는 팔괘의 형성과 성질이고, <序卦>는 64괘의 배열 순서에 대한 이론상의 해설이며, <雜卦>는 ‘乾剛坤柔’와 같이 64괘를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괘를 조합하여 32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易傳》의 <繫辭>가 陸賈의 《新語》에 인용된 점을 감안하면 <繫辭>는 漢왕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雜卦>는 漢왕조 건국 이후의 저술로 보고 있다. 《史記》와 《漢書》의 <儒林列傳>을 종합해 보면 孔子 사후 漢이 건국된 후까지 6대에 걸쳐 이어져 오던 易學은 齊人 田何에 전수되었다. 田何는 周王孫, 丁寬, 服生에게 전수하여 그들은 각기 《易傳》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 丁寬은 田王孫에게 전하고, 田王孫은 또 施仇, 孟喜, 梁丘賀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宣帝와 元帝시기에 관방역학을 대표하는 施, 孟, 梁丘의 학설이 성립되었는데, 그 중에 孟喜는 焦延壽에게 전하고, 焦延壽는 京房에게 전하여 《京氏易傳》이 나왔다. 그 외에 成帝와 哀帝 시기에 민간에도 費(直)·高(相)의 것이 있었다.<sup>37)</sup>

37) 朱伯崑, 《易學哲學史》第一卷, 北京, 昆侖出版社, 2005, pp.46-59.

그러니까 前漢 후기에 易學은 각 학파의 내용이 일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漢書》 <藝文志>에 의하면 민간에도 費氏와 高氏 두 학파가 있었으나 오직 《費氏易》이 琅邪 王橫에게 전수되어 費氏學이 되었는데 옛 문자에 근본을 두어 古文易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沛人 高相이 《易》을 아들 康과 蘭陵의 毋將永에게 전하여 高氏學이 되었는데, 施, 孟, 梁丘, 京씨의 《易》은 박사관이 설립되었지만 費씨와 高씨의 학파는 관설 역학으로 되지 못했었다. 이렇게 前漢 후기에는 역학도 고문학과와 금문학과로 나뉘어 있었고, 조정에서는 금문학과에 속하는 역학을 관설 역학으로 하였으며 고문학과에 속하는 《費氏易》과 《高氏易》은 민간에서 전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漢書》 <藝文志>, <儒林傳> 및 列傳 등에 의하면 역학이 재이 해석에 이용된 것은 孟喜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孟喜는 宣帝 때에 孝廉으로 뽑혀 郎 및 臺署長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陰陽災變을 점단하는 책을 이용하여 인사의 길흉을 추단하였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sup>38)</sup> 그는 甘露 3년(B.C. 51)에는 石渠閣에서 있었던 경학토론회에도 참여할 정도로 유명하였고, 그가 쓴 《孟氏易》은 宣帝 때 《施氏易》·《梁丘易》과 함께 학관에 설치되었다.<sup>39)</sup> 이렇게 前漢 후반기에 이르면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사와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고, 음양재이를 해석하면서 易學을 이용한 孟喜의 점험 방식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역학을 보다 정밀하게 발전시킨 것은 京房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初에 있어서의 역학의 전수·발전 과정을 보면 京房의 역학은 孟喜와 焦延壽의 것을 이어 받았다. 지금은 모두 망실되고 오직 《京氏易傳》만이 전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양, 오행과 재이사상이 첨가되어 신비적 경향도 갖게 되었다. 京房은 역괘와 오행을 거의 완전하게 결합시켜 《易傳》에서도 오행의 운행을 이용하여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확립하였다. 또한 역괘를 節氣에 배당시키고, 12월괘를 만들어 24절기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후 360

38) 《漢書》, 권88, <儒林傳第五十八>, “孟喜字長卿, -(중략)-. 得易家候陰陽災變書.”

39) 鈴木由次郎, 《漢易研究》, 明德出版社, 昭和 38年, p.24.

일에도 패효를 배치하고 인사의 길흉화복과 연계시켜 사용하였다.

그리고 京房은 새롭게 干支와 易卦의 결합 방법도 고안하였다. 그는 先秦 이래로 사용되어 왔던 月令에 근거한 地支 배당을 선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干支 배당법을 창안하였다. 京房이 창안한 十干과 八卦를 일치시킨 納甲說, 각 爻를 12支에 배당시킨 納支說 같은 간지와 역괘의 결합 방법은 수술학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부호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그리하여 《易傳》이 모든 개인의 길흉화복을 예언하고 재이 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京房은 前漢 역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고 그가 저술한 《京氏易傳》 三卷이 전해오고 있다. 그는 《周易》을 길흉을 占算하는 책자로 보고 여러 가지 점산의 기초적 예를 만들고 점후의 기술을 통하여 명성을 얻었다. 京房은 그런 과정에서 당시 유행했던 음양학설을 흡수하여 보조수단으로 활용함으로서 孟喜의 卦氣說을 한층 발전시켰고, 재이와 인사 관계의 설명을 위하여 일정한 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이를 해석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이 증대된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

재이론자나 수술가 또는 방사들에게 재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여러 예들에서처럼 재이의 원인을 황제의 정치, 寵臣의 정치 농단 등 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재이 현상에 대하여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모두를 흡족하게 할 수는 없었고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올 수 있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재이론자나 방사들은 재이 해석을 《春秋》의 大義와 음양론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경서나 常數易 그리고 다양한 수술도 활용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이 해석을 통한 예언의 방법론을 고찰하면서 哀帝 때의 李尋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尚書》를 익혔는데 특히 洪範災異說<sup>41)</sup>를

40) 최진목, 《漢代數術學研究—漢代人の 天·地·人 에 대한 이해 및 그 수술중의 운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51-60에 음양, 오행, 팔괘, 간지와 시간, 공간 및 계절 주기 등의 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조바람.

좋아하였고, 天文月令,<sup>42)</sup> 및 음양론도 수학하였던 유학자였다. 《漢書》列傳에 의하면 李尋은 天文曆法에 밝았던 丞相 翟方進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아갔고, 哀帝의 외척이었던 王根의 신임도 얻어 黃門侍郎을 역임하였다.

李尋의 경우 재이를 통하여 예언할 때 주로 천문역법을 활용하였다. 그의 방법론을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는 王根에게 올린 건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정사를 보좌하고 있었던 王根이 빈번한 재이의 원인을 묻자 李尋은 漢왕조가 중반에 쇠퇴하여 禍가 모아지고 있는 형상이라 보고 경서와 천문점술 및 음양론 등을 이용하여 사직 보전을 위한 방책<sup>43)</sup>을 건의하였다.

李尋의 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紫宮을 중심으로 한 太微, 少微, 天宮 그리고 女宮 등 極樞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그에 비유하여 지상의 지배자인 황제가 추구해야 할 정치를 강조하였다.<sup>44)</sup> 그의 점단에 의하면 당시 적황색의 운기가 사방을 가리고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천하가 혼란할 징조이고, 해성이 밝음을 다투는 것은 서민의 우두머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조짐이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 두 가지의 징험은 이미 陽朔 3년 申屠聖의 장군 사칭, 鴻嘉 3년 鄭躬의 山君 사칭, 永始 2년 樊並·蘇令의 모반 그리고 建始 3년 陳持弓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제시된 부분에서도 성좌가 서로 겹치는 천문현상을 통하여 점단하였다. 그에 의하면 매일 太白이 東井에 들어가고 積水를 범하며 天淵의 일각에 침범하는 등 더 많은 천변재이가 등장하는 것은 홍수 등의 조짐이므로 그 원인을 해소시켜야 한다<sup>45)</sup>고 강조하였다. 李尋이 제시한 홍수 방지책은 빠른 시일

41) 洪範은 《尚書》, <周書> 속의 편명이고, 재이설이라 함은 그 오행설 등을 의미함.

42) 매년 시행할 수 있는 政令을 12개월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禮記》에 <月令>편이 있음.

43)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書雲天聰明, 蓋言紫宮極樞, 通位帝紀, 太微四門, 廣開大道, 五經六緯, -(중략)-, 成敗之機, 不可不勉也.”

44) 紫宮은 紫微宮으로서 天宮으로 보고, 그 궁에서도 일직선으로 배열된 5개의 별 중 북극성은 천의 樞軸으로 天帝의 자리로 비유되며, 天樞 또는 天極이라고도 함.

45)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竊見往者赤黃四塞, 地氣大發, 動土竭民, 天下擾亂之征也. 彗星爭明, 庶雄爲桀, 大寇之引也. 此二者已頗效矣. -(중략)-. 及諸蓄水連泉, 務通利之. 修舊堤防, 省池澤稅, 以助損邪陰之盛. 案行事, 考變易, 訛言之效. 未嘗不至.”

에 은둔해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골라 쓰는 반면에 아첨꾼이나 재주도 없이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은 파직시키고, 관개수로의 정비, 제방 축조 그리고 池澤의 세를 감면하는 일 등이었다.

李尋의 천문점의 방법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예는 그가 哀帝의 조칙을 받고 올린 상주문 내용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夫日者，衆陽之長，輝光所燭，萬裏同晷，人君之表”<sup>46)</sup>와 같이 황제를 태양에 비교하고, 태양의 운행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색은 황제의 기침부터 조회, 국사 처리 그리고 퇴칭 이후까지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군주가 修德하지 않으면 태양이 빛을 잃고, 일출할 때 陰雲邪氣가 일어나는 것은 부인의 내밀한 청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심하지 않으면 일출 후에는 近臣이, 낮에는 조정 대신이, 그리고 일몰 후에는 처첩이나 시중드는 자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李尋의 천문점술 내용 중에는 月, 五星의 운행과 관련된 분야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상주문의 후반부를 보면 月은 陰을 대표하고 后妃·大臣·諸侯를 상징하는데, 그 운행이 평소와 달리 비정상적이면 후비 및 신하들의 정치 간섭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sup>47)</sup> 또 五星은 오행의 정수로서 왕 되는 사람의 호령에 따라 절도가 다르다고 하며 歲星, 填星, 熒惑, 太白 및 辰星 등 오성의 운행 과정에서 다른 성좌들과 겹치는 현상과 그 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한 후, 당시 四季를 담당하는 辰星에 이변이 일어나 황제에게 견고를 하고 있다<sup>48)</sup>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李尋이 음양론과 時令을 이용하여 재이를 해석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예도 많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걱정하면서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時令에 어울리는 명령을 내려 효과를 얻을

46)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47) 위의 책, “臣聞月者，衆陰之長，銷息見伏，百裏爲品，千裏立表，萬裏連紀，妃後大臣諸侯之象也。-(중략)-，此爲母後與政亂朝，陰陽俱傷，兩不相便。”

48) 위의 책, “臣聞五星者，五行之精，五帝司命，應王者號令爲之節度。-(중략)-，火入室，金上堂，不以時解，其憂凶，填，歲相守，又主內亂。-(중략)-，辰星主正四時，當效於四仲，四時失序，則辰星作異，今出於歲首之孟，天所以謹告陛下也。”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계절이나 달의 음양에 어울리는 정치를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 때에 한기가 응하여 따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서리나 우박의 재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 되는 사람은 음양을 중히 여기고 조정 신하들에게 시령 또는 월령을 주시시켜 시정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sup>49)</sup>고 주장하였다.

李壽은 음양오행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상소 중에는 地는 음의 일상적인 상징으로서 상·중·하로 구분하고 그 상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后妃의 불순함에 응험하는 것이고, 중위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대신의 반란에 응험하는 것이며, 하위의 그것은 서민들의 배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진이 어느 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國君에게 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관동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五星에 이변이 발생했으나 아직 반역과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므로 황제의 위엄을 세워 음기를 다스리고, 사사로움을 단절시킨 후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여 조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sup>50)</sup>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李壽은 재이를 이용하여 예언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재이를 해석할 때 주로 천문점술을 활용했지만 《易》 등 경서의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고,<sup>51)</sup> 음양오행론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비록 황제가 그의 주장을 모두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자문에 응하여 적중하였으므로 黃門侍郎에 임명될 정도로 신임을 받았었다. 그리고 水災가 있을 것을 예언한 후에는 騎都尉에 임명되어 黃河의 제방을 담

49) 위의 책, “問者春三月治大獄, 時賊陰逆, 恐歲小收, 季夏舉兵法, 時寒氣應, 恐後有霜雹之災, 秋月行封爵, 其月土濕輿, 恐後有雷雹之變. -(중략)-. 故古之王者, 尊天地, 重陰陽, 敬四時, 嚴月令, -(중략)-, 若陛下出令有謬於時者, 當如爭之, 以順時氣.”

50) 위의 책, “臣聞五行以水爲本, -(중략)-. 問者關東地數震, 五星作異, 亦未大逆, 宜務崇陽抑陰, 以救其咎, -(중략)-, 明朝廷皆賢材君子, 於以重朝尊君, 滅凶致安, 此其本也.”

51) <繫辭上>, “易曰縣象著明, 莫大乎日月”, 같은 책, “易曰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 艮卦의 彖辭, <書經>, <虞書>, 皐陶謨 “書云天聰明” 같은 책, <虞書>, 堯傳 “書曰歷象日月星辰”, 같은 책, <虞書>, 舜傳, “經曰三載考績, 三考黜陟”, 같은 책, <周書> 洪範, “書云水曰潤下”

당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자연현상의 변화를 인사나 국운과 연관시켜 예언한 인물들 중 成帝 때의 谷永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成帝 초기인 建始 3年(B.C. 30)에 지진과 일식이 발생했을 때 그가 올린 대책을 보면 2년 전에 동방에서 白氣가 일고 黃濁한 기운이 京師를 뒤덮은 것은 서로 연관되며 어떤 현상에 應驗함을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였다.<sup>52)</sup> 그리하여 흰 기운이 동방에서 일어난 것은 賤人이 흥성한다는 예후이고 황탁한 기운이 경사를 뒤덮은 것은 왕도가 단절될 조짐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谷永이 자연현상의 변화와 왕조의 운명을 연결시킨 배경에는 歷運說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 역운설은 天文歷數 및 陰陽消長의 학설에 역학과 오행설이 첨가된 것으로, 우주 만물의 성쇠는 天文歷數에 따르기 때문에 왕조 역시 정하여진 命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谷永은 成帝 재위 말기인 元延 元年(B.C. 12)에도 왕조는 어느 일가에 의해 계속적으로 독점되는 것이 아니고 교체되는 것이므로 재이에 부응하여 선정을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왕조가 교체된다고 전제하고, 당시의 세상은 三七之節紀<sup>53)</sup>에 해당되어 재이가 자주 발생하므로 漢왕조의 연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前漢 말기에는 왕조의 命運이 다하여 교체될 수도 있다는 예언적 발언이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前漢 후반기가 전개되면서 사상계에는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제왕의 덕정과 겸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으로는 왕조의 쇠퇴가 반드시 제왕의 책임만은 아니고 본래 정해진 멸망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歷運思想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와 유사한 예로 昭帝 때 眭弘이 禪讓에 대하여 언급했던 사례는 이미 앞에서

52) 《漢書》, 권85, <谷永杜鄴傳第五十五>, “元年正月, 白氣較然起乎東方, -(중략)-, 白氣起東方, 賤人將興之表也.”

53) 《漢書》, 권75, <眭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陛下承八世之功業, 當陽數之標季, 涉三七之節紀, 遭无妄之卦運, 直百六之災厄.” 고조의 초년으로부터 210년째에 危難을 당한다는 것으로, 高祖가 漢王으로 봉해진 것이 기원전 206년이므로 平帝 元始 4年인 기원 4년이 210년이 되는 해임.

소개된 바<sup>54)</sup> 있고, 《漢書》列傳을 보면 宣帝 때 활동한 路溫舒의 從祖父는 歷數天文을 전수받았던 인물로서, 漢왕조의 쇠망 시기가 도래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였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sup>55)</sup> 또한 같은 宣帝 때의 司隸較尉 蓋寬饒도 자연 순환의 법칙에 따라 왕조의 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가 大逆無道の 죄인으로 몰려 자결하였다는 기사도 있다.<sup>56)</sup> 이 같은 기사들은 이미 宣帝 때에도 여러 학설이 결합된 수술점복이 행하여지고 있었고, 그에 익숙한 方士 집단은 물론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역운설이 회자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成帝 말기와 哀帝 초기에 활동했던 甘忠可는 지금까지 언급된 어떤 인물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운설을 강조하였다. 그는 建平 2년(B.C. 5)에 최초의 讖書라고 할 수 있는 《天官曆》·《包元太平經》十二卷 등을 저술하고, 漢왕조의 운명이 종말에 이르렀으므로 반드시 再受命해야 한다고 하면서, 天帝가 真人 赤精子로 하여금 자기에게 그 법도를 가르치도록 했다<sup>57)</sup>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같은 符讖類의 출현은 前漢 후기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다. 秦의 始皇帝 때 “亡秦者胡也”라고 쓰여 있는 《綠圖書》의 출현이 흉노 정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예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前漢 초기인 文帝 17년에도 “人主延壽”라 각자된 玉杯를 얻어 나라 전체에 잔치를 베풀고 改元했다는 예<sup>58)</sup>도 있다. 그리고 前漢 말기에 이르러 왕조말적 현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재이론자 또는 방사들은 다양화된 數術方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符讖을 造作하였고, 光武帝가 이용했던 《赤伏符》도 이미 成帝 말기에 출현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59)</sup>. 그러니까 《赤伏符》나 甘忠可의 《天官曆》·《包元太平經》十二卷 등과 같은 符讖類은 前漢 말기의 정치적 위기

54) 위의 책, “漢帝宜雖差天下, 求索賢人, 禪以帝位.”

55) 위의 책, “以爲漢厄三七之間, 上封事以豫戒.”

56) 《漢書》, 권77, <蓋諸葛劉鄭孫母將何傳第四十七>, “功成者去, 不得其人, 則不居其位.”

57) 《漢書》, 권75, <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漢家逢天地之大終, 當更受命於天, 天帝使真人赤精子, 下教我此道.”

58) 《漢書》, 권4, <文帝紀第四>, “漢家逢天地之大終, 當更受命於天, 天帝使真人赤精子, 下教我此道.”

59) 鍾肇鵬, 《讖緯論略》, 遼寧教育出版社, 1991, p.27.

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甘忠可는 귀신을 이용하여 황제를 欺罔하고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中壘校尉 劉向의 탄핵으로 투옥되었다가 병사하였으나<sup>60)</sup> 그의 참서는 中平縣의 夏賀良과 容丘縣의 丁廣世 및 東郡의 郭昌에게 전수되었다. 그들도 漢왕조의 운명은 종말에 이르렀으므로 다시 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再受命說을 주장하였다. 夏賀良은 甘忠可의 참서를 학습한다는 죄목으로 고발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암암리에 계속 전파되었고, 哀帝 즉위 초에는 경서에 밝고 재이설에도 익숙하였던 司隸校尉 解光에 의하여 夏賀良 등이 소지하고 있었던 讖書가 황제에게 소개되기에 이르렀다<sup>61)</sup>. 당시 그 참서를 검토하도록 지시받은 奉車都尉 劉歆은 五經에 위배되므로 보급시켜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였으나 長安令 郭昌, 黃門侍郎 李尋 등은 成帝에게 후사가 없었던 점, 哀帝의 병약함 그리고 각종 재해 등을 天의 견고로 해석하면서 연호를 바꾸어 왕조가 연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였다.<sup>62)</sup>

그 결과 夏賀良 등의 건의는 용납되고 再受命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哀帝는 建平 2년에 당시의 여러 가지 천변지이의 현상은 漢왕조의 운세가 다하였음을 보이는 것이므로 연호를 고쳐 太初元將 元年으로 改元하고 황제의 존호는 陳聖劉太平皇帝로 함을 천하에 선포하는 조칙을 내렸던 것이다.<sup>63)</sup> 비록 夏賀良 등의 참위설은 1개월 정도 지난 후 邪道로 배척을 받았으나 改元 등 재수명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참위설이 조정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符讖은 前漢 말기에 일부 유가화 된 방사 또는 방사화 된 유가 등

60) 《漢書》, 권75, <哇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忠可以教重平夏賀良、容丘丁廣世、東郡郭昌等。中壘校尉劉向奏忠可假鬼神罔上惑衆, 下獄治服, 未斷病死。”

61) 위의 책, “漢家逢天地之大終, 當受命於天, 天帝使真人赤精子, 下教我此道。”

62) 위의 책, “漢曆中衰, 當更受命。成帝不應天命, 故絕嗣。今陛下久疾, 變異屢數, 天所以譴告人也。宜急改元易號, 乃得延年益壽, 皇子生, 災異息矣, 得道不得行, 咎殃且亡, 不有洪水將出, 災火且起, 滌蕩民人。”

63) 위의 책, “維漢興至今二百載, 曆紀開元, 皇天降非材之君, 漢國再獲受命之符, 朕之不德, 曷敢不通夫受天之元命, 必與天下自新。其大赦天下, 以建平二年爲太初元年, 號曰陳聖劉太平皇帝, 漏刻以百二十爲度。”

의 집단이 왕조말적 상황을 틈타 여러 경서의 의의 및 다양화된 수술방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改朝換代를 주장하는 예언을 조작하면서 그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된 부참은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결합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호소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아울러 단순한 정치투쟁의 범위를 벗어나 王莽의 符命과 같이 변질되어 왕조 창업에도 이용되었다.

#### 4. 나오는 글

지금까지 前漢末 哀帝와 平帝시대부터 크게 유행되기 시작하였던 讖符의 출현 과정을 살펴보았다. 참위설은 자연 재해나 천문 이상 등을 인간사회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천인합일론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전한 후반기에 각종 재이 현상을 현실정치와 관련시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말하는 재이론자나 방사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그 골격이 구조되었다. 그러므로 참위설의 내용 중에는 각종 天變地異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上天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예단하는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이론자나 방사들이 재이 해석을 통하여 길흉을 판단할 때 각기 점험 대상과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재이론자 및 방사들은 각종 재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술뿐만 아니라 《春秋》, 《詩》, 《書》 및 《易》 등 경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참위설은 경학의 권위를 업고 현실정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한 말기에 이르르면 황권의 실추, 외척 및 내관의 정치 농단, 빈부격차의 심화 등 여러 가지 왕조말적 현상이 계속되면서 歷運說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재이 해석을 통한 장래의 회복을 예측하거나 정치 비판을 주류로 삼았던 재이론자나 방사들 중에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왕조의 흥

망까지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은 자의적으로 教義를 조작하여 재수명을 강조하거나 왕조의 교체를 언급하였고, 《天官曆》·《包元太平經》 十二卷 등과 같은 讖書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이 글은 《漢書》 등 사료에 나타난 讖書의 등장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위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 즉, 前漢末 정치와 참위설의 상관관계, 참위설 유행의 사상적 배경 특히 今文經學 및 古文經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참위설의 정치적 활용의 예도 자세하게 고찰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 參考文獻 >

- 顧詒剛(2005), 《秦漢的方士與儒生》, 上海古籍出版社.
- 徐興无(2003), 《讖緯文獻與漢代文化構建》, 北京, 中華書局.
- 鐘肇鵬(1991), 《讖緯論略》, 遼寧教育出版社.
- 趙吉惠 等 編(1993), 《中國儒學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田中麻紗巳(1986), 《兩漢思想の研究》, 研文出版.
- 福井重雅(2005), 《漢代儒教の史的研究》, 汲古書院.
- 劉澤華 主編(1992), 《中國古代政治思想史》, 南開大學出版社.
- 町田三郎(1985), 《秦漢思想史の研究》, 創文社.
- 鈴木由次郎(昭和 38년), 《漢易研究》, 明德出版社.
- 朱伯崑(2005), 《易學哲學史》 第一卷, 北京, 昆命出版社.
- 최진목(2002), 《漢代數術學研究—漢代人的 天·地·人에 대한 이해 및 그 수술중의 운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鄭東哲(1984), <漢代 災異說의 一考察>, 《東亞研究》 제4집.
- 金錫佑(2004), <前漢 元帝代 災異論과 儒教政治>, 《東洋史學研究》 제87집.

## &lt;ABSTRACT&gt;

The theory of Ch'en-wei(讖緯) based on the idea that extraordinary phenomena(災異) have some connection with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beings. During the second half of Han-Dynasity there were many artist of divination who insist their political opinion by theory of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beings. Therefore, the prophecy what forecast the intention of heaven occupied much space.

Artist of divination make use of several methods to decipher good and bad luck. And there are much divinatory sign on the same extraordinary phenomena, and can not give all person satisfaction. So it is essential that describe the seeds and results of extraordinary phenomena rationally. Accodingly the artist of divination secured authority by make the methods for example astronomical observation, and make use several sacreed books.

On the other hand, it had been continud unstable social conditions caused monopoly of political authority by maternal relative and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rich and poor at the close of Han-dynasity. And the fatalism of dynasity's life time diffused widely. Then the artist of divination who make mention of dangerous of Han-dynasty has rised. Through such a process some figue advocated reconfirm the Mandate of Heaven(天命), and the books of Ch'en-wei came into existense.

KEYWORD: extraordinary phenomena, divination, fatalism of dynasity, prophets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2. 3. 30. | 2012. 5. 3. | 2012. 5. 12. | 2012. 5. 21. | 2012. 5. 31. |